

## 가정폭력 피해 여성의 사회적 반응 경험, 자기개방, 외상 죄책감, 외상 후 성장 간의 관계\*

한 선 미

전북대학교 심리학과 / 대학원생

이 영 순<sup>†</sup>

전북대학교 심리학과 / 교수

본 연구는 가정폭력 피해 여성의 사회적 반응 경험과 외상 후 성장의 관계에서 자기개방과 외상 죄책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가정폭력 관련기관을 이용하는 가정폭력 피해 여성 23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와 PROCESS macro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변인 간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둘째, 긍정적 사회적 반응 경험과 외상 후 성장의 관계를 자기개방이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부정적 사회적 반응 경험과 외상 후 성장의 관계를 외상 죄책감이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긍정적 사회적 반응 경험이 직접적으로 외상 후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자기개방 수준을 높임으로써 외상 후 성장을 높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부정적 사회적 반응 경험은 외상 죄책감 수준을 높임으로써 외상 후 성장을 저해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가정폭력 피해 여성의 사회적 반응 경험이 자기개방, 외상 죄책감,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제시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와 제언에 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가정폭력 피해 여성, 사회적 반응 경험, 긍정적 사회적 반응 경험, 부정적 사회적 반응 경험, 자기개방, 외상 죄책감, 외상 후 성장

\* 본 연구는 한선미(2021)의 전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가정폭력 피해경험 여성의 자기개방과 사회적 반응경험, 외상 죄책감, 외상 후 성장 간의 관계’ 중 일부를 발췌, 수정한 내용임.

† 교신저자 : 이영순, 전북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전북 전주시 백제대로 567

Tel : 063-270-2928, E-mail : leeys@jbnu.ac.kr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과 관계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가정폭력은 심리적 외상을 야기함으로써 개인의 일상과 안녕을 침해한다. 심지어 생명과 관련된 치명적인 위협을 초래하기도 한다. 심리적 외상(trauma)은 죽음이나 상해의 위협 등 충격적인 사건의 경험이나 목격으로 인해 강렬한 두려움과 무력감, 공포를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Herman, 2012). 심각한 경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를 겪기도 하는데,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과거의 피해 경험이 현재 속으로 끊임없이 침습하거나, 관련된 상황이나 사람을 강하게 회피하고, 과도한 각성과 긴장 상태에 놓이는 것 등이 있다(Allen, 2010). 상당수의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은 이러한 증상을 다른 외상 경험자에 비해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된다(Woods & Campbell, 1993). 이는 가정폭력이 가족 구성원에게 의도적으로 상해를 입히거나 안녕을 위협하는 행위(손정영, 유정주, 1998), 대표적인 대인 간 외상이자 반복적 외상에 해당하는 것과 연관이 깊다(Allen, 2010). 즉, 가족이라는 친밀한 관계 안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가정폭력의 특성으로 인해 피해자는 항상 두려움과 긴장, 각성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다(전주여성의전화, 2015). 그러므로 단순히 '외상 이후'라는 개념으로는 가정폭력의 특성과 맥락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 이에 Herman(2012)은 '복합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complex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라는 개념을 제안하며, 반복적·대인적 외상이 야기하는 심리적 증상이 더 복잡하고 심각하므로, 일반적인 PTSD 증상과는 구별해야 하며, 외상에 대한 반응을 연속적인 상태로 이해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대인 간 외상을 겪는 경우 단순 외상 경험자에 비해 외상 후

부정적 인지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기도 하였다(박지은, 정남운, 2016; 장진이, 2010). 이처럼 복합적인 심리적 증상을 겪고 있는 대인 간 외상 피해자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함에도 관련 연구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서영주, 김영근, 2018).

한편, 과거 대부분의 외상 관련 연구는 PTSD를 중심으로 한 병리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1990년대 외상 후 성장(Post-traumatic Growth: PTG)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면서 외상 사건을 극복하는 과정에서의 긍정적 심리 변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Tedeschi & Calhoun, 1996). 매우 위협적인 사건들은 높은 수준의 트라우마를 야기하며, 심각한 경우 그 증상이 장기간 지속되기도 한다. 하지만 외상을 경험한 모든 사람이 PTSD 진단을 받는 것은 아니며, 수개월 뒤 증상이 사라지기도 한다. 심지어 엄청난 심리적 고통 속에서도 새로운 관점과 통찰을 경험하기도 한다(Joseph, 2018). Tedeschi와 Calhoun(1996)은 이처럼 외상 사건을 극복하려는 노력의 결과로써 경험하게 되는 긍정적 변화를 외상 후 성장이라고 정의하였다. 주로 자신과 타인, 삶에 대한 관점이 긍정적으로 변하기도 하는데, 이때의 변화는 외상을 겪기 이전으로의 단순한 회복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렇지만 외상 후 성장을 경험한다고 해서 외상으로 인한 스트레스 증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외상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관련 증상을 겪지만, 이를 극복하려는 시도도 동시에 일어난다는 의미이다(Joseph, 2018). 가정폭력 쉼터를 이용하는 여성들을 인터뷰한 자료(전주여성의전화, 2015)에 의하면, 피해 여성들은 가정에서 겪었던 배우자의 지속적인 통제와 폭력으로 인해 쉼터에 있으면

서도 불안, 무력감, 분노 등의 부정적인 정서나 증상을 호소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부당함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스스로를 더욱 돌보고 사랑하겠다는 결심을 하기도 하고, 도움을 주는 타인이나 사회의 중요성에 대해 알게 되었다고 말한다. 즉, 가정폭력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과 후유증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며, 그 결과로써 자신과 삶에 대한 관점에 있어서 긍정적인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간 국내의 가정폭력 외상 관련 연구는 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연구에 집중되어 왔다(신세화, 2019). 외상 후 성장에 관한 연구에서는 외상 경험 유형의 하위요인으로 다루지는 연구(이수림, 2013; 박애실, 2016; 박지은, 정남운, 2016; 김나정, 안현의, 2020)가 대부분이며, 가정폭력 외상에 직접 주목한 연구는 많지 않다. 그중에서도 아동기 가정폭력을 경험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서영주, 김영근, 2018; 송현, 이영순, 2013; 이수림, 2017; 한지예, 김명찬, 2017)는 일부 있지만, 가정폭력 피해 여성을 대상으로 한 외상 후 성장 연구는 거의 부재하다.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외상 유형, 고통 정도, 사건에 대한 평가와 대응, 인지적 대처 과정, 회복 탄력성, 내적 통제 소재, 사회적 지지 등의 다양한 요인이 고려되어 왔다(Linley & Joseph, 2004; 이수림, 2013에서 재인용). 그중 많은 연구에서 외상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 지지와 같은 타인의 반응이나 조력의 중요성을 입증하고 있다. 대인 간 폭력피해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타인으로부터 부정적인 반응을 많이 경험할수록 PTSD를 포함하여 더 심각한 고통이나 우울 등의 증상을 겪는 것으로 보고하였다(Dworkin,

Brill, & Ullman, 2019). 이처럼 피해경험을 개방한 대상으로부터의 공감이나 지지 등은 외상 사건의 영향력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반면, 부정적이거나 적대적인 반응은 외상으로 인한 손상을 심화시키고,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Herman, 2012). Ullman(2000)은 이를 외상 경험에 대한 사회적 반응(Social Reaction)이라고 명명하였다. 여러 연구들은 대부분의 외상 경험자들이 그 경험을 개방했을 때 긍정적 반응과 부정적 반응을 모두 받는 것으로 보고하였다(심기선, 안현의, 2014; Ullman & Filipas, 2001). 특히, 사회적 반응의 영향력에 주목한 연구들은 긍정적 사회적 반응으로 인한 이득에 비해 부정적 사회적 반응으로 인한 손실이나 잠재적인 위험이 더 크고(김나정, 안현의, 2020; Dworkin et al., 2019), 부정적인 반응이 외상 후 적응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심기선, 안현의 2014; Ullman & Filipas, 2001). 이는 다른 사람에게 외상사건을 개방했을 때 상대방의 반응이 부정적이면 오히려 개방하지 않은 것보다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Ullman & Filipas, 2001). 그럼에도 가까운 사람이나 타인, 사회적 지원체계에 가정폭력 피해 사실을 공개하는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부정적 반응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대체로 가정 안에서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사소하고 사적인 문제로 대하는 반응을 겪거나, 심지어 폭력이 일어난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경우도 빈번하다(전주여성의전화, 2015; 한국여성의전화, 2020).

이처럼 상반되는 사회적 반응 경험의 유형과 그 영향력을 고려할 때, 외상사건을 경험한 당사자는 자기개방 여부에 대한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 경험을 말

하지 않고 홀로 감내할 때는 신체적, 심리적 회복이 어렵게 되지만, 경험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고통스럽고 공포를 유발하는 기억을 다시 떠올리는 과정에서 외상사건을 재경험함으로써 재외상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고(이동훈, 이수연, 윤기원, 최수정, 김시형, 2017; Cann et al., 2011), 어떤 경우에는 상대방으로부터 비난을 받거나 낙인찍히는 등의 위협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Lehman, Ellard, & Wortman, 1986).

자기개방은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 경험 등을 다른 사람에게 언어적으로 나타내는 것(Derlega, Metts, Petronio, & Margulis, 2009) 또는 자신의 개인적인 부분을 타인에게 드러냄으로써 타인이 자신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하는 행동(Pennebaker, Kiecolt-Glaser, & Glaser, 1988)으로 정의된다. 외상 경험에 대한 깊은 수준에서의 반복적인 자기개방은 자신과 외상 경험 간에 거리를 둘 수 있게 해주며, 이는 감정에 대한 통제감을 갖도록 하여 부정적인 감정을 감소시키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Pennebaker, 1997). Taku, Cann, Tedeschi와 Calhoun(2009)의 연구에 의하면 자기개방을 하는 경우가 하지 않은 경우보다 외상 후 성장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erman(2012)은 외상사건이 언어화되지 못할 때 증상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따라서 외상 치유의 핵심은 신뢰할 수 있는 대상에게 외상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에 있다고 할 수 있다(Allen, 2010). 깊은 수준의 자기노출이 심리와 정서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연구들(강희주, 2018; 이은정, 2000), 자기개방과 외상 후 성장 간의 정적인 상관관계를 확인한 연구들(송현, 이영순, 2013; 이유리, 장현아, 2016; 이하나, 2016; Tedeschi & Calhoun, 1996)이 이러

한 주장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자기개방과 외상 후 성장 간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다는 연구(Lindstrom, Cann, Calhoun, & Tedeschi, 2013)도 있다. 그들은 자기개방이 일어났는지의 여부 뿐만 아니라 자기개방에 대한 반응이 무엇이었는지, 자기개방을 하는 사람과 상대방의 상호작용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응을 제공하는 사람과의 관계양상이나 기대수준에 따라 반응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며, 사회적 반응이나 지원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실제로 사회적 지원을 받는 정도보다 정신건강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Dworkin et al., 2019). 이동훈, 이수연, 윤기원, 최수정, 김시형(2018)의 연구에서도 자기노출이 외상 후 성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외상 후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긍정적 사회적 반응 경험과 외상 후 성장의 관계를 자기개방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서영선, 2019)도 있지만, 자기개방과 외상 후 성장의 관계에서 긍정적 사회적 반응 경험이 부분 매개한다는 연구 결과(류지현, 2018)도 있다. 이는 사회적 반응 경험과 자기개방 간의 관계에 있어 그 방향성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사회적 반응 경험의 내용과 수준이 어떠했는가가 자기개방 수준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역으로 자기개방 수준이 사회적 반응 경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처럼 선후관계를 다르게 설명하는 연구들이 도출되는 배경에는 두 변인 간의 관계적 특성이 있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즉, 사회적 반응 경험과 자기개방은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한 명 또

는 여러 대상과의 관계에서 두 변인이 상호작용하며 반복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이다.

한 가지 고려할 점은 자기개방에는 빈도와 깊이에서 다양한 차원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단순 사실에 대한 일차적 자기개방과 깊은 수준의 지속적 자기개방은 그 의미와 효과가 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반응 경험이 깊은 수준의 지속적 자기개방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는 것이 더욱 유의미할 것이라는 가정에 초점을 두고 탐색해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일차적 개방에 대해 부정적인 사회적 반응을 경험하게 되면, 추가적인 자기개방 의지가 있었더라도 이를 위축시킬 수 있다. 반대로 처음엔 단순 사실에 대한 개방 의사만 있었더라도 긍정적 반응을 경험하게 되면 깊은 수준의 자기개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피해경험이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노출되는 경우에는 타인으로부터 받는 사회적 반응 경험의 영향력이 더 중요해질 수 있다.

자신의 고통스러운 경험에 대해 노출하지 않는 경우는 그 경험이 자신에 관해 부정적인 내용이거나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숨기는 것이라고 여기게 된다. 그러나 노출하게 되면 외상 경험과 관련된 부정적인 인지나 죄책감이 완화되기도 한다(Derlega et al., 2009). 특히, 외상과 관련된 죄책감은 외상으로 인한 공포나 두려움 등의 정서를 완화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Lee, Scragg, & Turner, 2001), 외상 피해자인 자신을 비난하고, 자기 처벌적인 행동을 유발하기 때문에 매우 파괴적이다(Allen, 2010). Kubany 등(1996)은 죄책감을 자신이 다르게 생각하거나 행동했어야 했다는 생각과 그에 동반되는 불쾌한 감정으로 정의했다. 특히, 성폭

력 피해, 가정폭력 피해 등 다양한 대인관계 외상 피해자들이 호소하는 정서 중 하나로 보고하였다. Street, Gibson과 Hologan(2005)은 가정폭력을 겪은 여성들은 피해에 대한 책임소재를 자신에게 전가하며, 이러한 부정적인 인지가 외상 죄책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가정폭력을 반복적으로 겪게 되면 자신에게 그러한 일이 왜 지속적으로 일어나는지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태도나 행동이 외상사건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정희진, 2011에서 재인용).

한편, 죄책감에 관한 기존의 접근 방식은 대부분 개인 고유의 죄책감 경향성에 초점을 두다 보니 외부적 요인과 관련된 특정한 죄책감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다(Kubany & Watson, 2003; 정희진, 2011에서 재인용). 이는 상황과 맥락에 따른 스트레스 요인들이 죄책감 경향성에서 개인차보다 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죄책감은 죄책감 경향성으로 일반화하기 어려우므로 두 개념을 구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Tangery, 1991). 외상에 대한 죄책감과 PTSD 간 관련성에 관한 정희진의 연구(2011)에 의하면 대인 간 외상 집단이 단순 외상 집단에 비해 외상 죄책감과 PTSD 증상이 높게 나타나며, 외상 죄책감의 일부 하위요인이 PTSD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같은 맥락에서, 외상 경험 후 갖게 되는 자신과 세상에 대한 부정적인 인지나 죄책감은 외상 후 성장과 부적 관계를 갖는 등 주요 예측 변인으로 밝혀지고 있다(김지희, 2016; 박애실, 2016; 박지은, 정남운, 2016).

타자의 사회적 반응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외상사건에 대한 외상 경험자의 해석에 영

향을 주기 때문이다(Ehlers & Clark, 2000). 가정 폭력 피해 사실을 개방했을 때 상대방으로부터 부정적인 반응을 겪게 되면 자신의 잘못 때문에 폭력이 일어났다고 여길 가능성이 높다(전주여성의전화, 2015). 이처럼 부정적 반응을 많이 받는 경우 자기비난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Hassija & Gray, 2012). 또한, 사회적 지지는 자기비난을 감소시키지만, 낙인찍기, 피해자 비난, 통제하기 등의 부정적 사회적 반응은 자기비난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Ullman, Townsend, Filipas, & Starzynski, 2007). 김나정과 안현의(2020)의 연구에서도 정서적 지지는 자기비난과 부적 상관을, 부정적 반응은 자기비난과 정적 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희(2016)의 연구에서는 죄책감이 긍정적 반응과는 부적 상관, 부정적 반응과는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상 경험을 개방했을 때 정서적 지지 등의 긍정적 반응을 많이 경험할수록 자기비난이나 죄책감을 낮게 경험하는 반면, 부정적 반응을 많이 받을수록 죄책감 등의 부정적 인지 수준도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대인 간 외상 경험자가 외상 후 성장을 도모하는 데 있어 깊은 수준의 자기개방은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반면, 외상 죄책감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외상 후 성장, 자기개방, 외상 죄책감 모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적 요인이 사회적 반응 경험이다. 가령, 긍정적 사회적 반응 경험은 심리적 외상을 완화하고,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부정적 사회적 반응 경험은 죄책감이나 또 다른 심리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가정폭력 피해 여성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반응 경험에 관한 국내 연구는 부재하

고, 외상 후 성장 연구 또한 많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므로 가정폭력 피해 여성의 사회적 반응 경험이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과 그 과정을 자기개방과 외상 죄책감이 어떻게 매개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것은 상담 현장을 비롯한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지원체계의 구성원들에게 반응과 개입에 있어서 여러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정폭력이라는 대인 간 외상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피해 여성을 대상으로, 피해개방에 따른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사회적 반응 경험, 자기개방의 수준, 그 과정에서 갖게 되는 외상과 관련된 죄책감, 그리고 외상 후 성장 간의 관련성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연구 목적에 따른 연구 문제와 연구 모형은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가정폭력 피해경험, 긍정적 사회적 반응 경험, 부정적 사회적 반응 경험, 자기개방, 외상 죄책감, 외상 후 성장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연구 문제 2.** 긍정적 사회적 반응 경험과 외상 후 성장의 관계를 자기개방과 외상 죄책감이 매개하는가?

**연구 문제 3.** 부정적 사회적 반응 경험과 외상 후 성장의 관계를 자기개방과 외상 죄책감이 매개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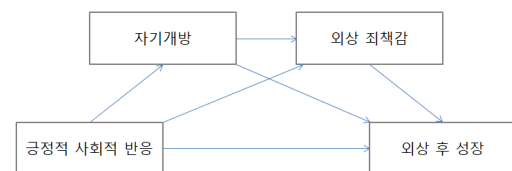


그림 1. 연구 모형(긍정적 사회적 반응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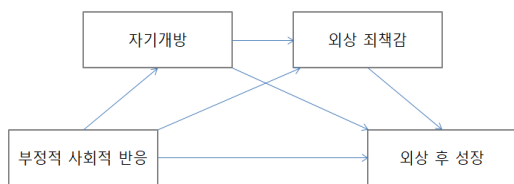


그림 2. 연구 모형(부정적 사회적 반응 경험)

## 방 법

###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배우자로부터 가정폭력 피해를 경험한 기혼여성으로, 2021년 1월부터 약 3개월에 걸쳐 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여성단체 등에 설문을 의뢰하였으며, 총 277부가 수집되었다. 이 중 폭력피해 경험이 전혀 없다고 응답한 27부와 불성실 응답 20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230부를 연구에 사용하였다. 설문은 자기보고식 기입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대상자의 연령은 40대가 73명(31.7%)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1명(30.9%), 30대 48명(20.9%), 60대 이상 26명(11.3%), 20대 12명(5.2%) 순이었다. 이 중 컴퓨터 이용자는 103명(44.8%), 가정폭력상담소 이용자는 80명(34.8%),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여성단체 등 이용자는 47명(20.4%)이다.

### 측정 도구

#### 가정폭력 피해 경험

가정폭력 피해 경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Straus, Hamby, Boney-McCoy와 Sugarman(1996)의 SCTS2(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와 WHO

(2005)의 Controlling Behavior의 강압적 통제문항을 재검토하여 사용한 2016년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 연구(여성가족부, 2016)의 가정폭력 피해 경험요인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최근 1년 이내의 폭력피해 경험에 대해 응답하도록 하였다. 하위요인은 강압적 통제,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으로 구성되었다. 강압적 통제의 경우, 없음(1)에서 매우 자주(4)까지 4점, 그 외 피해 경험은 전혀 없음(1)에서 거의 매일(7)까지 Likert 척도에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전체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89로 나타났다.

#### 외상 경험 개방에 대한 사회적 반응 경험

외상 경험 개방에 대한 사회적 반응 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Ullman(2000)이 개발한 사회적 반응 척도(Social Reactions Questionnaire: SRQ)를 심기선과 안현의(2014)가 번안하고 타당화한 한국판 K-SRQ 척도를 사용하였다. K-SRQ척도는 전체 44문항으로 긍정적 사회적 반응(정서적 지지, 실질적 도움)과 부정적 사회적 반응(낙인찍기, 방해하기, 통제하기, 피해자 비난하기, 자기중심적 반응)으로 구성되었으며, 5점 Likert 척도로 제작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 사회적 반응은 전체 하위요인을 사용하였지만, 긍정적 사회적 반응은 실질적 도움은 제외하고 정서적 지지 척도만을 사용하였다. 척도를 타당화한 심기선과 안현의의 연구(2014)에 의하면 의료적 처치 도움, 심리상담 권유 등의 문항으로 구성된 실질적 도움 척도의 평균이 정서적 지지 척도에 비해 현저히 낮게 나타나는데, 그 이유로 외상의 정도에 따라 의료적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거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상담 권유가 보편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심기선과 안

현의의 연구(2014)의 내적 합치도는 .76 ~ .96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긍정적 사회적 반응은 .97로, 부정적 사회적 반응은 .88로 나타났다.

### 외상 후 성장

외상 후 성장을 측정하기 위해 Tedeschi와 Calhoun(1996)이 개발하고 송승훈, 이홍석, 박준호와 김교현(2009)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한국판 외상 후 성장 척도(Korean Post-traumatic Growth Inventory: K-PTGI)를 사용하였다. K-PTGI는 6점 Likert 척도로 16문항의 4요인(자기지각의 변화, 대인관계 깊이 증가, 새로운 가능성 발견, 영적·정신적 깊이 증가)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하위요인 중 '영적·정신적 깊이 증가' 척도는 제외하고 사용하였다. 여러 선행연구(서영선, 2019; 이동훈 등, 2017; 이유리, 장현아, 2016; 한성아, 2020)에 의하면, 해당 요인의 경우 다른 하위요인에 비해 내적 합치도가 현저히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다른 하위요인과는 달리 타 변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질적인 결과를 나타내기도 하였다(이하나, 2016; 한성아, 2020). 이는 척도가 개발된 서구사회와는 달리 한국사회에서는 종교에 대한 보편적 인식에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유추할 수 있다. Tedeschi와 Calhoun(1996)이 개발한 원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90이었고, 송승훈 등(2009)이 타당화한 K-PTGI의 내적 합치도는 .83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전체 내적 합치도는 .86으로 나타났다.

### 자기개방

외상 경험에 대한 자기개방을 측정하기 위해 박준호(2007)가 개발한 자기개방 척도를 사

용하였다. 본 척도는 자신이 경험한 외상사건을 타인에게 개방한 정도, 빈도, 깊이 등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없음(1점)'에서 '매우 많이(7점)'까지 7점 Likert 척도에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박준호(2007)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97로 나타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내적 합치도는 .98로 나타났다.

### 외상 죄책감

외상 관련 죄책감 척도를 측정하기 위해 Kubany 등(1996)이 개발한 외상 관련 죄책감 척도(Trauma-Related Guilt Inventory: TRGI)를 정희진(2011)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Kubany 등(1996)은 척도에 대한 요인분석을 통해 3개의 요인(책임 및 사후 해석 편향, 부적절한 행동, 정당성 결여)을 묶어 죄책감 인지 요인으로 명명하고, 2개의 요인을 별도의 죄책감인지 상위요인으로 추가하였다. 정희진(2011)의 연구에서는 4요인 모형(부정적 스트레스, 책임 및 사후편향, 부적절한 행동, 정당성 결여)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하위요인 중 부정적 스트레스와 책임 및 사후편향 문항을 제외하고, Kubany 등(1996)의 원척도에 포함되어 있던 죄책감 인지 상위요인을 추가하여 연구에 사용하였다. 정희진(2011)의 연구에서 하위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부적절한 행동 .84, 정당성 결여 .64이었다. 본 연구에서 전체 내적 합치도는 .80으로 나타났다.

###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1.0을 사용하여 기술통계 및 빈도분석을 실시했으며, 주요 변인들 간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



했다. 또한, 사회적 반응 경험과 외상 후 성장의 관계에서 자기개방과 외상 죄책감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의 model 6을 적용하여 분석하였고, 부트스트래핑 방법으로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 결 과

### 상관관계 및 평균과 표준편차

본 연구의 주요 측정 변인들의 정규성 분포를 확인하고, 각 측정 변인 간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변인들의 왜도의 절댓값은 .11에

서 1.74로 나타났고, 첨도의 절댓값은 .00에서 2.55로 나타나 정규성 분포를 가정할 수 있다. 상관분석 결과, 가정폭력 피해 경험은 부정적 사회적 반응( $r=.246, p<.001$ ), 외상 후 성장( $r=.244, p<.001$ )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긍정적 사회적 반응은 자기개방( $r=.453, p<.001$ ), 외상 후 성장( $r=.305, p<.001$ )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외상 죄책감( $r=-.196, p<.05$ )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부정적 사회적 반응은 외상 죄책감( $r=.205, p<.01$ )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개방은 외상 후 성장( $r=.281, p<.001$ )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외상 죄책감은 외상 후 성장( $r=-.196, p<.01$ )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측정변인 간 상관관계,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N=230)

	1	2	3	3-1	3-2	3-3	3-4	3-5	4	5	6
1. 가정폭력 피해 경험	1										
2. 긍정적 사회적 반응	-.01	1									
3. 부정적 사회적 반응	.25***	-.12	1								
3-1. 낙인하기	.26***	-.19**	.83***	1							
3-2. 방해하기	.17**	-.02	.85***	.72***	1						
3-3. 통제하기	.16*	-.24***	.92***	.74***	.72***	1					
3-4. 비난하기	.18**	-.26***	.87***	.67***	.64***	.85***	1				
3-5. 자기중심적 반응	.26***	.20**	.66***	.35***	.46***	.48***	.41***	1			
4. 자기개방	.04	.45***	.07	.03	.03	-.02	.01	.24***	1		
5. 외상 죄책감	-.02	-.20**	.21**	.20**	.18**	.23***	.25***	-.02	-.10	1	
6. 외상 후 성장	.24***	.31***	.06	-.03	.03	-.01	-.02	.25***	.28***	-.20**	1
평균	2.68	3.32	2.18	1.98	2.31	2.15	2.07	2.41	3.44	2.61	4.20
표준편차	1.39	1.06	0.80	0.83	0.96	0.98	1.08	1.01	1.69	0.69	1.03
왜도	.77	-.42	.50	.64	.28	.81	.88	.37	.27	.11	-.31
첨도	-.24	-.42	-.05	-.05	-.62	.13	.23	-.45	-.98	.00	-.24

주. \* $p<.05$ , \*\* $p<.01$ , \*\*\* $p<.001$

외상 죄책감과 가장 상관이 높은 부정적 사회적 반응 하위요인은 비난하기( $r=.250, p<.001$ )이며, 그 다음은 통제하기( $r=.234, p<.001$ ), 낙인하기( $r=.204, p<.01$ ), 방해하기( $r=.177, p<.01$ )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기중심적 반응은 다른 하위요인과는 달리 자기개방( $r=.240, p<.01$ )과 외상 후 성장( $r=.245, p<.001$ )에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매개효과 분석**

사회적 반응 경험이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개방과 외상 죄책감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PROCESS macro의 model 6을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긍정적 사회적 반응 경험과 외상 후 성장의 관계에서 자기개방과 외상 죄책감의 매개효과**

긍정적 사회적 반응 경험이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자기개방과 외상 죄책감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각 경로의 유의성을 검증하여 표 2에 제시하였다. 그 결과

긍정적 사회적 반응 경험은 자기개방( $\beta=.45, p<.001$ )과 외상 후 성장( $\beta=.20, p<.05$ )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외상 죄책감( $\beta=-.19, p<.05$ )에는 유의한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개방은 외상 죄책감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외상 후 성장( $\beta=.18, p<.05$ )에는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상 죄책감은 외상 후 성장( $\beta=-.14, p<.05$ )에 유의한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적 사회적 반응 경험이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개방과 외상 죄책감의 간접효과 유의성 검증을 위해 Bootstrapping을 실시한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긍정적 사회적 반응→자기개방→외상 후 성장의 경로는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B=.08 CI [.02\sim.14]$ ). 그러나 긍정적 사회적 반응→외상 죄책감→외상 후 성장의 경로와 긍정적 사회적 반응→자기개방→외상 죄책감→외상 후 성장의 경우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2. 긍정적 사회적 반응 경험이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개방과 외상 죄책감의 매개효과 분석 결과( $N=230$ )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beta$	t	LLCI	ULCI	R <sup>2</sup> (F)
자기개방	긍정적 사회적 반응	.72	.09	.45	7.68***	.54	.91	.21(59.02***)
외상 죄책감	긍정적 사회적 반응	-.12	.05	-.19	-2.57*	-.22	-.03	.04(4.55*)
	자기개방	-.01	.03	-.02	-.25	-.07	.05	
외상 후 성장	긍정적 사회적 반응	.19	.07	.20	2.80*	.06	.33	.14(11.96***)
	자기개방	.11	.04	.18	2.56*	.03	.19	
	외상 죄책감	-.21	.09	-.14	-2.21*	-.39	-.02	

주. \*  $p<.05$ , \*\*\*  $p<.001$

표 3. 긍정적 사회적 반응경험이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개방과 외상 죄책감의 매개효과 검증 (N=230)

경로	B	SE	95% 신뢰구간	
			LLCI	ULCI
긍정적 사회적 반응→자기개방→ 외상 후 성장	.08	.03	.02	.14
긍정적 사회적 반응→ 외상 죄책감→외상 후 성장	.03	.02	.00	.06
긍정적 사회적 반응→자기개방→외상 죄책감→외상 후 성장	.00	.01	-.01	.01

주. Bootstrap 표본은 5,000번 반복 추출함.

**부정적 사회적 반응 경험과 외상 후 성장의 관계에서 자기개방과 외상 죄책감의 매개효과**

부정적 사회적 반응 경험이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자기개방과 외상 죄책감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각 경로의 유의성을 검증하여 표 4에 제시하였다. 부정적 사회적 반응 경험은 외상 죄책감( $\beta=.21, p<.01$ )에만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개방은 외상 후 성장( $\beta=.26, p<.001$ )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상 죄책감은 외상 후 성장( $\beta=-.19, p<.01$ )에 유의한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사회적 반응경험이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개방과 외상 죄책감의 간접효과 유의성 검증을 위해 Bootstrapping을 실시한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부정적 사회적 반응→외상 죄책감→외상 후 성장의 경로는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B=-.05 CI [-.12\sim-.01]$ ). 그러나 부정적 사회적 반응→자기개방→외상 후 성장의 경로와 부정적 사회적 반응→자기개방→외상 죄책감→외상 후 성장의 경우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본 연구의

표 4. 부정적 사회적 반응경험이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개방과 외상 죄책감의 매개효과 분석 결과 (N=2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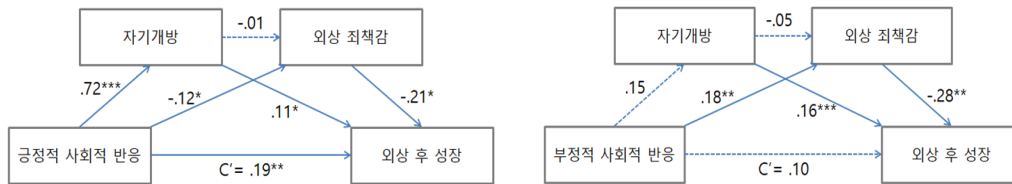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beta$	t	LLCI	ULCI	R <sup>2</sup> (F)
자기개방	부정적 사회적 반응	.15	.14	.07	1.08	-.12	.42	.01(1.17 <sup>*</sup> )
외상 죄책감	부정적 사회적 반응	.18	.06	.21	3.30 <sup>**</sup>	.07	.29	.06(6.72 <sup>**</sup> )
	자기개방	-.05	.03	-.12	-1.83	-.10	.00	
외상 후 성장	부정적 사회적 반응	.10	.08	.08	1.20	-.06	.26	.11(9.57 <sup>***</sup> )
	자기개방	.16	.04	.26	4.05 <sup>***</sup>	.08	.23	
	외상 죄책감	-.28	.10	-.19	-2.87 <sup>**</sup>	-.47	-.09	

주. <sup>\*</sup>  $p<.01$ , <sup>\*\*</sup>  $p<.01$ , <sup>\*\*\*</sup>  $p<.001$

표 5. 부정적 사회적 반응경험이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개방과 외상 죄책감의 매개효과 검증 (N=230)

경로	B	SE	95% 신뢰구간	
			LLCI	ULCI
부정적 사회적 반응→자기개방→ 외상 후 성장	.02	.03	-.03	.08
부정적 사회적 반응→ 외상 죄책감→외상 후 성장	-.05	.03	-.12	-.01
부정적 사회적 반응→자기개방→외상 죄책감→외상 후 성장	.00	.00	.00	.01

주. Bootstrap 표본은 5,000번 반복 추출함.



주. 경로계수는 비표준화 계수임. \* $p < .05$ , \*\* $p < .01$ , \*\*\* $p < .001$

그림 3. 사회적 반응과 외상 후 성장의 관계에서 자기개방과 외상 죄책감의 매개효과

최종모형 및 표준화 계수는 그림 3과 같다.

### 논 의

본 연구는 가정폭력이라는 대인 간 외상을 겪고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사회적 반응 경험, 자기개방, 외상 죄책감, 외상 후 성장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사회적 반응 경험이 자기개방과 외상 죄책감을 통해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를 토대로 사회적 반응 경험의 하위 요인인 긍정적 사회적 반응 경험과 부정적 사회적 반응 경험이 각각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자기개방과 외상 죄책감이 매개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연구 모형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와 함의는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에 대한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긍정적 사회적 반응 경험, 자기개방, 외상 후 성장은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이는 가정폭력 피해 경험을 개방한 대상의 반응이 긍정적일수록 자기개방 수준이 높고 외상 후 성장을 많이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개방과 긍정적 반응, 외상 후 성장 간의 정적 관계를 확인한 연구(류지현, 2018; 서영선, 2019), 긍정적 반응과 외상 후 성장 간의 정적인 상관을 확인한 연구(유희선, 2019), 자기개방과 외상 후 성장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들(송현, 이영순, 2013; 이유리, 장현아, 2016; 이하나, 2016; Tedeschi & Calhoun, 1996)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긍정적 사회적 반응은 외상 죄책감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부정적 사회적 반응은 외상 죄

책감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긍정적 반응과 부정적 반응이 죄책감 관련 정서와 각각 부적 상관, 정적 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난 김지희(2016)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리고 사회적 지지가 자기비난을 감소시키지만, 부정적 사회적 반응은 자기비난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들(Hassija & Gray, 2012; Ullman et al., 2007)과도 맥락을 같이한다.

부정적 사회적 반응의 하위요인 중에서 자기중심적 반응을 제외한 낙인하기, 방해하기, 통제하기, 비난하기는 모두 외상 죄책감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으며, 그중 비난하기가 가장 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정폭력 피해 경험에 대해 타인에게 개방했을 때 비난하기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많이 경험할수록 외상 관련 죄책감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낙인찍기, 피해자 비난, 통제하기 등의 부정적 사회적 반응이 자기비난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한 연구들(Ullman et al., 2007)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한편, 낙인하기나 비난하기와 같은 의도적인 반응보다 자기중심적 반응이나 방해하기와 같은 비의도적인 반응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반응 척도를 타당화한 심기선과 안현의(2014)의 연구와 일치한다. 반면, 다른 하위요인들과는 달리 자기중심적 반응은 자기개방 및 외상 후 성장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자기중심적 반응은 피해경험을 개방한 대상이 마치 자신이 겪은 일인 양 분개하거나, 피해자가 진정시켜줘야 할 정도로 가해자에 대해 지나치게 분노하는 반응을 의미한다. 즉, 피해사실을 노출한 대상으로부터 가해자에 대한 분노 표현을 많이 경험할수록 외상 후 성

장을 더 많이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성폭력 피해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이하나(2016)의 연구와 일치한다. 이는 한국에서는 자기중심적 반응이 서구와는 달리 긍정적 기능을 하며, 비의도적인 반응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설명할 수 있다(심기선, 안현의, 2014). 가해자에 대한 상대방의 과도한 분노 표현이 피해자로 하여금 자칫 위축감을 줄 수 있어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가정폭력의 책임소재를 가해자에게 두기 때문에 피해자로서는 지지받는다고 여겨 깊은 수준의 자기개방과 외상 후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외상 죄책감은 외상 후 성장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이는 죄책감이 외상 후 성장과 부적 관계로 나타난 김지희(2016)의 연구나 자기비난 등 외상 이후 갖게 되는 부정적인 인지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상 후 인지와 외상 후 성장 간에 부적인 관계를 밝혀낸 여러 연구들(박애실, 2016; 박지은, 정남운, 2016; 이동훈 등, 2017; Barton, Boals, & Knowles, 2013)과 맥락을 같이한다.

연구 문제 2에 대한 결과를 논의하자면, 긍정적 사회적 반응 경험이 외상 후 성장으로 가는 경로를 검증한 결과 자기개방이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긍정적 사회적 반응 경험이 직접적으로 외상 후 성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자기개방 수준을 높임으로써 간접적으로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 결과는 외상 경험을 개방한 상대방으로부터 정서적 지지와 같은 긍정적 반응을 경험하는 것 자체가 외상 후 성장에 중요한 요인이 되며, 아울러 외상 경험에 대한 생각과 느낌을 개방하는 빈도와 수준을 높임으로써 외

상 후 성장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긍정적 사회적 반응과 외상 후 성장의 관계에서 자기개방이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난 서영선(2019)의 연구와 일치한다. 또한, 각각의 경로와 관련해서는 긍정적 사회적 반응이 외상 후 성장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한 연구들(류지현, 2018; 유희선, 2019), 자기개방이 외상 후 성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들(송현, 이영순, 2013; 이하나, 2016; Tedeschi & Calhoun, 1996), 자기개방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외상 후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여러 선행연구들(이유리, 장현아, 2016; 전유진, 배정규, 2013; 정민선, 2014)과 맥락을 같이한다.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배경에는 외상 경험자가 주위의 주요 사람들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받는 경우, 자신이 겪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게 되며(Derlega et al., 2009), 외상 사건과 자신에 대해 긍정적 해석을 함으로써(Ehlers & Clark, 2000) 외상 후 성장에 이르게 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또한, 공감과 지지 반응을 경험하게 되면 이를 제공하는 상대방을 보다 신뢰하게 되어, 솔직하고 내밀한 감정의 개방까지 이끌어 낼 수 있다. 이러한 깊은 수준의 자기개방은 외상으로 인한 긴장과 불안을 완화시킴으로써 외상사건에 대처하고, 이를 극복하는 데 기여하는 것(송현, 이영순, 2013)으로 사료된다.

긍정적 사회적 반응 경험은 외상 죄책감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고, 외상 죄책감은 외상 후 성장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긍정적 사회적 반응 경험이 외상 죄책감을 경유하여 외상 후 성장

에 미치는 경로가 유의한 수준으로 확인되지는 않았다.

연구 문제 3에 대한 결과를 논의하자면, 부정적 사회적 반응 경험의 경우 외상 후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외상 죄책감을 완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외상 경험을 개방한 대상으로부터 비난이나 낙인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경험하게 되면, 외상사건과 관련한 자기비난이나 죄책감을 높게 경험하게 되고, 이로 인해 외상 후 성장 수준이 낮아지게 됨을 의미한다. 즉, 부정적 사회적 반응이 외상 죄책감을 높임으로써 외상 후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동함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는 부정적 사회적 반응이 자기비난을 유의하게 증가시킨다는 연구(Ullman et al., 2007), 죄책감이나 자기비난과 같은 부정적인 인지가 외상 후 성장에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한 연구들(김지희, 2016; 박애실, 2016; 박지은, 정남운, 2016)을 연결시켜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긍정적 사회적 반응 경험이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과는 확연히 대비된다. 외상 경험자는 고통의 재경험이나 낙인 등의 염려에도 불구하고(Lehman et al., 1986), 심리적 대처를 위해 자기개방을 시도한다. 그럼에도 중요하거나 신뢰하는 자원으로 여겼던 상대방의 반응이 부정적이게 되면, 외상 사건과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해석을 유도하여, 자기비난과 죄책감을 가중시키는 것(Street et al., 2005)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또한, 외상과 관련한 죄책감은 피해자인 자신을 책망하고 비난하게 함으로써 외상으로 인한 손상을 심화시키고(Herman, 2012), 이를 가중시키거나 방조하는 타인과 사회에 대한 불신을 야기함으로써 외

상 후 성장을 방해하는 변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논의를 종합해 보면, 긍정적 사회적 반응 경험과 외상 후 성장의 관계에서 자기개방이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를 통해 긍정적 사회적 반응 경험을 많이 할수록 깊은 수준의 자기개방을 촉진함으로써 외상 후 성장에 기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대로 부정적 사회적 반응 경험은 가정폭력 외상에 대한 죄책감을 높이고, 이로 인해 외상 후 성장이 저해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는 가정폭력 피해 여성의 사회적 반응 경험이 자기개방, 외상 죄책감,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외적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와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의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폭력 피해 여성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연구가 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나 심리적 무력감 등의 부정적 정서에 집중되었던 한계에서 벗어나, 지속적 피해와 고통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인 외상 후 성장에 주목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둘째, 가정폭력 등 대인 간 외상 피해자의 치유와 성장을 도모하는 데 있어 사회적 반응의 중요성에 관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또한, 사회적 반응 경험이라는 외부적인 요인과 자기개방과 외상 죄책감이라는 내적인 요인이 어떻게 연결되어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해 탐색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셋째, 긍정적 사회적 반응 경험이 자기개방을 매개하여 외상 후 성장을 촉진하는 경로와 부정적 사회적 반응이 외상 죄책감을 매개하여 외상 후 성장을 저해하는 경로를 밝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가정폭력 등 대인

간 외상 피해자를 상담하거나 지원하는 현장에서 정서적 지지와 같은 긍정적 반응이 중요한 이유와 피해자 비난하기, 낙인하기와 같은 부정적인 반응이나 개입을 경계해야 하는 근거를 확인하였다.

넷째, 가정폭력 피해 여성이 경험하는 부정적인 인지로서의 죄책감과 긍정적 변화인 외상 후 성장을 함께 탐색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가정폭력 피해 여성은 외상으로 인해 신체적, 심리적 고통뿐만 아니라 죄책감도 겪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를 극복하고 성장하려고 노력한다. 즉, 고통과 성장사이에서 끊임 없이 고군분투하며 생존해내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상담자나 사회적 지원자 등은 그 과정을 매개하거나,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는 피해 여성의 내적 경험에 대해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 필요성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피해 경험 개방에 대한 상대방의 긍정적 반응이나 부정적 반응이 이후 자기개방 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하였다. 그러나 참여자들이 응답한 자기개방과 사회적 반응 경험 사이의 선후관계를 명확히 단정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주관적 기억에 의존하여 회고적으로 응답하다 보니 실제의 경험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자기개방과 사회적 반응 간 관계에 관한 보다 분명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추후 연구에서 다양한 대상으로 다각적이며 반복적 검증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각 변인의 특성상 측정되는 시점과 소재에서의 차이가 존재한다. 즉, 자기개방이

라는 과거의 행위, 사회적 반응이라는 과거의 외부적 요인, 외상 죄책감과 외상 후 성장이라는 현재의 내적 요인을 설문으로 측정하는 과정에서 검토하지 못한 여러 변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반응자와의 관계 및 그 반응에 대한 피해자의 지각 정도가 연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다양한 변인들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가정폭력 피해 경험자를 대상으로 종단적 연구 방법이나 질적 연구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일부 하위 척도는 다른 하위 척도들과는 달리 내적 합치도가 매우 낮게 나타나거나 변인 간 상관관계에서 상반된 결과를 나타냈다. 이는 서구에서 개발된 척도를 한국사회에 적용하는 데 있어 문화적 차이 등이 영향을 미친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부 하위요인은 제외하고 사용함으로써 기존 선행연구와의 비교 검토가 일부 제한적일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기존 척도들에 대한 다각적이고 반복적인 검증 및 한국사회에 적합한 척도 개발을 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 참고문헌

- 강희주 (2018). 외상에 대한 자기노출이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마음챙김과 의도적 반추의 이중매개 효과.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나정, 안현의 (2020). 외상 경험 개방에 대한 사회적 반응과 우울의 관계: 외상 후 인지의 매개효과와 성차. 인지행동치료, 20(1), 91-113.
- 김지희 (2016). 외상 경험 개방 후 사회적 반응 및 정서 경험과 심리적 적응의 관계. 충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류지현 (2018). 자기노출, 긍정적 사회 반응, 의도적 반추 및 삶의 의미와 외상 후 성장 간의 관계. 삼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애실 (2016). 외상 후 인지가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침습적 반추와 의도적 반추의 이중매개효과와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상담학연구, 17(5), 181-200.
- 박준호 (2007). 스트레스 사건에 대한 반복생각, 생각억제 및 자기노출이 정서와 주관안녕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박지은, 정남운 (2016). 외상 후 부정적 인지와 외상 후 성장의 관계에서 용서의 조절효과: 대인관계 외상 경험자를 중심으로. 인간이해, 37(2), 167-185
- 서영선 (2019). 대인외상 경험자의 낙관적 설명양식과 외상개방에 대한 사회적 반응이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외상개방의 매개효과.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영주, 김영근 (2018). 대인관계 외상과 외상 후 성장의 관계: 정신화와 정서기반대처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0(3), 775-798.
- 손정영, 유영주 (1998). 아내학대의 원인에 대한 생태학적 접근. 대학가정학회지, 36, 145-160.
- 송승훈, 이홍석, 박준호, 김교현 (2009). 한국판 외상 후 성장 척도의 타당도 및 신뢰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4(1), 193-214.
- 송현, 이영순 (2013). 회피에착과 외상 후 성장



- 의 관계에서 정서적 자기노출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4(6), 3753-3767.
- 신세화(2019). 네트워크분석을 통한 가정폭력 피해 여성의 외상 후 성장 보호요인 연구.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심기선, 안현의 (2014). 한국판 외상 경험 개방에 대한 사회적 반응 척도(K-SRQ)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6(2), 271-296.
- 여성가족부 (2016). 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
- 유희선 (2019). 고등학생의 외상 경험 개방 후 사회적 반응과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이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동훈, 이수연, 윤기원, 최수정, 김시형 (2017). 성격 5요인, 외상 후 인지, 사건 관련 반추, PTSD 증상, 외상 후 성장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6(2), 241-270.
- 이동훈, 이수연, 윤기원, 최수정, 김시형 (2018). 트라우마를 경험한 대학생의 지각된 사회적지지, 정서적 자기노출이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 대처전략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0(2), 371-395.
- 이수림 (2013). 외상 유형이 외상 후 성장 및 지혜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9(3), 319-341.
- 이수림 (2017). 아동·청소년기 애착외상 경험 이후 외상 후 성장 과정에 대한 질적 연구. 사회과학연구, 43(1), 277-312.
- 이유리, 장현아 (2016). 관계 상실 경험 여고생의 자기노출, 사회적 지지가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의도적 반추를 매개변인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1(1), 65-80.
- 이은정 (2000). 심리적 상처 경험에 대한 고백과 정의 작용기제와 그 효과.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하나 (2016). 성폭력피해 경험자의 자기개방이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반응과 의도적 반추를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진이 (2010). 반복적 대인간 외상 경험자의 자기체계 손상과 심리적 특성.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전유진, 배정규 (2013). 자기 노출, 사회적 지지 및 의도적 반추가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인간이해, 34(2), 215-228.
- 전주여성의전화 (2015). 전라북도가정폭력실태조사 결과발표회 자료집.
- 정민선 (2014). 대학생의 자기노출, 사회적 지지와 외상 후 성장과의 관계에서 의도적 반추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5(1), 415-430.
- 정희진 (2011). 외상 경험자의 외상 죄책감 특성과 심리적 적응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한국여성의전화 (2020). '친밀한 관계 내 여성 폭력'관련 법·제도 개선 토론회 자료집.
- 한성아 (2020). 반려동물 상실 애도와 심리적 성장의 관계에서 의미재구성과 긍정적 사회적 반응의 조절된 매개효과.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한지예, 김명찬 (2017). 가정폭력 외상 후 성장에 대한 협력적 자문화기술지: 대인관계 신경생물학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8(6), 523-541.
- Allen, J. G. (2010). 트라우마의 치유(권정혜, 김정범, 조용래, 최혜경, 최윤경, 권호인 공역). 서울: 학지사. (원전은 2005에 출판)

- Barton, S., Boals, A., & Knowles, L. (2013). Thinking about trauma: The unique contributions of event centrality and post-traumatic cognitions in predicting PTSD and post-traumatic growth. *Journal of Traumatic Stress, 26*, 718-726.
- Cann, A., Calhoun, L. G., Tedeschi, R. G., Triplett, K. N., Vishnevsky, T., & Lindstrom, C. M. (2011). Assessing post-traumatic cognitive processes: The event related rumination inventory. *Anxiety, Stress, & Coping, 24*(2), 137-156.
- Derlega, V. J., Metts, S., Petronio, S., & Margulis, S. T. (2009). 자기노출 (이두희, 임승희, 전기홍 역).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원전은 1993에 출판)
- Dworkin, E. R., Brill, C. D., & Ullman, S. E. (2019). Social reactions to disclosure of interpersonal violence and psychopathology: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Clinical Psychology Review, 72*, 101750.
- Ehlers, A., & Clark, D. M. (2000). A cognitive model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8*(4), 319-345.
- Hassija, C. M., & Gray, M. J. (2012). Negative social reactions to assault disclosure as a mediator between self-blame and post-traumatic stress symptoms among survivors of interpersonal assault.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7*(17), 3425-3441.
- Herman, J. L. (2012). 트라우마 가정폭력에서 정 치적 테러까지 (최현정 역). 서울: 열린책 들. (원전은 1997에 출판)
- Joseph, S. (2018). 외상 후 성장의 과학 (임선영, 김지영 역). 서울: 학지사. (원전은 2013에 출판)
- Kubany, E. S., Haynes, S. N., Abueg, F. R., Manke, F. P., Brennan, J. M., & Stahura, C. (1996).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trauma-related guilt inventory(TRGI). *Psychological Assessment, 8*(4), 428-444.
- Kubany, E. S., & Watson, S. B. (2003). Guilt: Elaboration of a multidimensional model. *The Psychological Record, 53*, 51-90.
- Lee, D. A., Scragg, P., & Turner, S. (2001). A role of shame and guilt in traumatic events: A clinical model of shame-based and guilt-based PTSD. *British Journal of Medical Psychology, 74*, 451-466.
- Lehman, D. R., Ellard, J. H., & Wortman, C. B. (1986). Social support or the bereaved: Recipients' and providers' perspectives on what is helpful.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4*(4), 438-446.
- Lindstrom, C. M., Cann, A., Calhoun, L. G., & Tedeschi, R. G. (2013). The relationship of core belief challenge, rumination, disclosure, and sociocultural elements to post-traumatic growth. *Psychological Trauma: Theory, Research, Practice, and Policy, 5*(1), 50.
- Linley, P. A., & Joseph, S. (2004). Positive change following trauma and adversity; A review, *Journal of Traumatic Stress, 17*, 11-21.
- Pennebaker, J. W. (1997). Writing about emotional experiences as a therapeutic process. *American Psychological Society, 8*, 162-166.
- Pennebaker, J. W., Kiecolt-Glaser, J. K., & Glaser, R. (1988). Confronting traumatic experience and immunocompetence: A reply to neale, cox, valdimarsdottir, and stone. *Journal of*

-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4), 638-639.
- Straus, M., Hamby, S., Boney-McCoy, S., & Sugarman, D. (1996). 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CTS2). *Journal of Family Issues*, 17(3), 283-316.
- Street, A. E., Gibson, L. E., & Hologan, D. R. (2005). Impact of childhood traumatic events, trauma related guilt, and avoidant coping strategies on PTSD symptoms in female survivor of domestic violence. *Journal of Traumatic Stress*, 18(3), 245-252.
- Taku, k., Cann, A., Tedeschi, R. G., & Calhoun, L. G., (2009). Intrusive versus deliberate rumination in post-traumatic growth across US and Japanese samples. *Anxiety, Stress & Coping*, 22(2), 129-136.
- Tangery, J. P. (1991). Assess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proneness to shame and guilt: Development of the self-conscious affect and attribution inventor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1), 102-111.
- Tedeschi, R. G., & Calhoun, L. G. (1996). The post-traumatic growth inventory: Measuring the positive legacy of trauma. *Journal of Traumatic Stress*, 9(3), 455-471.
- Ullman, S. E. (2000). Psychometric characteristics of the social reactions questionnaire.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4, 257-271.
- Ullman, S. E., & Filipas, H. H. (2001). Predictors of PTSD symptom severity and social reactions in sexual assault victims. *Journal of Traumatic Stress*, 14(2), 369-389.
- Ullman, S. E., Townsend, S. M., Filipas, H. H., & Starzynski, L. L. (2007). Structural models of the relations of assault severity, social support, avoidance coping, self-blame, and PTSD among sexual assault survivor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31, 23-37.
- Woods, S. J., & Campbell, J. C. (1993). Post-traumatic stress in battered women: Does the diagnosis fit? *Issues in Mental Health Nursing*, 14, 173-186.
-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5). WHO multi-country study on women's health and domestic violence against women.
- 원 고 접 수 일 : 2022. 09. 07  
수정원고접수일 : 2022. 11. 17  
게 재 결 정 일 : 2023. 01. 12

##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Reaction Experience, Self-disclosure, Trauma-Related Guilt and Post-traumatic Growth of Women Who Have Experienced Domestic Violence

Han, Sun-Mi

Lee, Young-Soon

Chonbuk National University

Student

Professor

The present study aimed to examine the mediating role of self-disclosure and trauma-related guil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reaction experience and post-traumatic growth among women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Participants were 230 women who have experienced domestic violence.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and SPSS macro.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social reaction, self-disclosure, trauma-related guilt, and post-traumatic growth. Second, self-disclosure indirectly mediated the links between positive social reaction experience and post-traumatic growth. Third, traumatic-related guilt directly mediated the association between negative social reaction experience and post-traumatic growth. The results of this study highlight the importance of considering social reaction experiences that may be associated with women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the study and further directions for research were discussed.

*Key words* : Women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experience of social reactions, positive social reaction, negative social reaction, self-disclosure, trauma-related guilt, post-traumatic growth